

팀원역할	성 명	역 할
	김진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 - 전통놀이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구매 및 증빙 영수증 서류정리, 정산서 관리
	이승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 모든 팀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전활동, 회의활동, 사후활동의 전체적인 일정 제안 및 관리 - 회의 중 대한민국 대표단이 하나가 되어 회의 참여 및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 수행 - 아세안사무국과 꾸준한 연락을 통해 회의 일정 브리핑 및 전달사항 정리
	김영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 - 제출해야 할 보고서 및 서류들(사전활동 일지) 등을 한글파일로 정리하여 온라인활동지원방 업로드
	김수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및 자료정리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회의에서 단체 및 개인 사진들을 촬영하고 정리하여 일지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 사전활동에서 한국대표단이 준비한 자료 및 조사내용을 찾기 쉽도록 요약 및 정리
	박준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매니저 - 팀원들의 자기소개 내용 및 회의내용, 참가 소감문 등을 SNS에 정리하여 꾸준히 올리고 다른 국가의 대표들에게 SNS 계정 알리기
	김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표 - 대표와 함께 한국대표단이 회의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조언 - 아세안 및 다른 국가 이해관계자들과 고위관직자분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대표단과 꾸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움

2. 사전활동 결과

가. 활동 요약표

번호	활동날짜	사전활동 내용	장 소
1	2022. 6.	6명의 대표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아세안 국제회의 참가의 기반이 될 사전 조사를 위한 전반적인 틀을 잡고 함께 협력하며 리서치 할 수 있는 구글문서를 만듦 사전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파트 분배	온라인(줌미팅)
2	2022. 6.	6명의 대표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각자 한 것들을 서로에게 발표하고 회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의견을 정리 및 결정 회의주제가 여러 개의 소주제로 나눠짐에 따라 각자 한 개의 주제를 맡아 심화조사를 진행 한복과 문화공연 등 필요한 준비물 리스트를 만들고 오프라인 회의를 위해 온라인 회의 중 개개인이 이뤄야 할 목표 설정	온라인(줌미팅)

3	2022. 7.	회의 참가 전 마지막 점검을 위한 사전미팅으로서 정책제안서에 도움이 될만한 아이디어들을 생성 및 카테고리별로 요약 팀원 모두에게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주어진 발언권을 최대한 사용하고 오자는 팀 목표 성립 준비물 구매상태와 서류 스케줄 등 마지막 점검	온라인(줌미팅)
	2022.07.21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기회 미래의 가능성들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청소년들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터뷰 진행	온라인(줌미팅)

나. 사전활동 결과보고

사업명	2022년 국제회의 참가단		회의명	아세안 청소년 대화
팀명	Team Korea		작성자	김영채
활동명	아세안 청소년 대화 사전활동 결과보고		참석자	이승명 김영채 김진혁 박준석 김수현 김수인
목표 대비 성과	목 표		성 과	
	아세안 한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방안에 대해 조사 ex) 인터뷰 논문 리서치		한 분의 전문가와 인터뷰하여 고견과 자문을 부탁드리고 관련 지식을 쌓음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해 자료조사를 진행해 사전지식을 확보함.	
활동결과	1. 회의를 위한 자료조사 - 각자 배정된 Topic을 중심으로 회의 전 한 달 간 자료 조사를 실시함(붙임) - 비공식, 공식 회의를 포함하여 중간보고를 위해 총 3번의 회의와 부가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최윤식 박사님 현 아시아미래연구소장 인터뷰 진행 - 사전 인터뷰 질문지 작성 팀원들이 각자 2개씩 질문을 사전에 정하여 공유하였음(붙임)(링크) - 인터뷰 질문지를 바탕으로 전문 지식과 한국의 입장을 구체화(붙임)			
자체평가	1. 모든 팀원이 흡족할 만한 수준의 자료조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각 주제별로 한국의 입장과 해결방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줌 2. 한 분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현재 한국의 현실과 앞으로의 코로나에 대응할 방향성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함. 또한, 인터뷰 후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해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음			
역할분담	이 름		역 할	
	이승명(대표)		Group 5(Inclusive & Sustainable Growth) 자료조사 대표	
	김수인(부대표)		Group 2(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자료조사 부대표	
	김영채(서기)		서기 Group 7(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among ASEAN Member States)자료조사 담당	
	박준석(SNS 담당)		Group 5(Climate Change) 자료조사 담당 SNS 게시물 업로드	
	김진혁(총무)		Group Future of Work 자료조사 담당	

	김수현(촬영 및 문서 정리)	Group 1(Governance) 자료조사 담당 온라인 회의 과정 촬영 문서 정리 인터뷰 결과 정리	
지출내역	물 품	지출금액	용 도
	제기10	10,000	ASEAN Youth Dialogue 일정 중 문화교류 전통놀이 활동 준비물
	딱지접기용 색지 20	20,000	ASEAN Youth Dialogue 일정 중 문화교류 전통놀이 활동 준비물 중 딱지 접기용
	도면통대	6,300	딱지 접기용 색지 휴대용 통
	수설화 생활한복 김수현	86,000	문화교류 저녁식사를 위한 복장준비
	태영한복 김수인	40,000	문화교류 저녁식사를 위한 복장대여
	총 계	162,300원	
결과물	● 자료조사보고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0oKsRDIYaehohGkqc3qRAj7tLK_SgP9M 위 링크는 아세안 회담을 위한 팀원들의 사전자료 조사자료를 담은 드라이브입니다.		
	● 인터뷰 사전 질문지 작성 <최윤식 박사님 인터뷰 질문> 1. 최근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조사를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어려움과 위기 기회와 발전이라 양극화하여 보는 측면이 강하게 있는 것 같은데 한 차례의 극심한 전염병을 이겨낸 후 우리의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지에 대한 박사님의 총체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의 질문에서 "코로나를 이겨낸 후라고 이야기를 매우 단순하게 하였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과연 어느 시점에서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ex. 코로나-19의 종식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한 후 2. [MKTV 내일 수업에서 코로나 이후 무궁무진하게 변할 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들이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의에서 언급하신 코로나 이후 나타날 새로운 경제적 기회들이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기회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의에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의 이미 정해진 미래가 많게는 10년까지 앞당겨졌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러한 앞당겨진 미래가 현재의 빈부격차 social inequalities & economic disparities)와 소외계층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리라 생각하시나요? 3. 코로나-19와 같은 위험한 바이러스의 출현은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 국가는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다시 찾아온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좋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4. 저희가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단으로 가서 여러 분야에서의 안전들을 제안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재에 있는 여러 문제점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 해결책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가 현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점을 제시하는 분야라고 생각되어 박사님께서 해결책들을 어떻게 구상하시고 발달시키시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다. 밑의 질문들은 저희가 ASEAN 국가들과의 회의에 임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 간단하게 여쭙고자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리니 간단하게만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코로나 이후 청소년들이 ASEAN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2) 한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ASEAN 국가들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과 ASEAN 국가들이 자주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 중 어느 것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2022년 7월 21일 최윤식 박사님과 인터뷰

1. 코로나: 발전기회이자 위기

기회는 앞당겼고 위기는 심화시켰다. 4th industrial revolution이 가져온 기회 중 몇 예를 들자면 일자리 창출과 시장확대가 있다. 또 과거 기술로 해내기 힘들었던 방역기술(신속한 진단 치료 백신 개발을 발달시키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미래의 사회를 앞당겼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기회를 말하자면 AI 기술의 발전이다. 가상 공간이 확대되면서 비대면의 사회가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이 모든 소통과 사회활동을 가상 공간에서하며 비대면 사회에 익숙해졌다. 이 현상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것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모두 기술에 의지하게 되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모두가 능숙하게 비대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과연 몇 년 걸렸을지 생각을 해보아라 아마 수십 년이 걸렸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코로나는 정해진 미래를 앞당겼다고 할 수 있다. 즉, "progress which was meant to happen was made quicker."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동시에 코로나는 위기를 불러오기도 했다. 예를들면 부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여기서 "부는 중요한 레버리지 포인트가 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면서 social division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에 대한 타격은 서민층과 약자들이 더 많이 받는다.

또, 코로나가 불러오는 다른 위기는 환경오염이다. On national level, GDP가 낮은 나라들은 치솟는 물가를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을 할 때 자연에너지보다 싼 석탄을 사용하며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석탄 발전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는 모두의 문제가 된다. 부의 간격을 벌리는 것은 쉬우나 벌려진 간격을 좁히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 예상된다.

2. 코로나-19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 생활하는 세대들이(MZ 세대가 있지만 그보다 더 어린아이들은 10년 후 위기를 느끼게 된다.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미래세대는 책임이 없는 환경문제는 고스란히 그들이 받게 된다. 반면 기성세대는 겪는 피해는 적지만 미래세대에 비해 beneficiaries가 된다.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에 대해 말하자면- 탈탄소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정부는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즉, 청년들은 내지 않아도 됐을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순이익이 줄어들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특히 GDP가 낮은 국가들은 세금을 조금만 늘려도 타격이 크다. 그런 나라들은 탈탄소 movement에 참여하는 한계가 있다.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19는 청년에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공동목표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기후변화 진행 속도를 낮추는 것이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Net ZERO carbon 2025"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꽤 이상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3. 코로나-19가 현존하는 빈부격차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의 빈부격차 심하다. 유럽 내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한다. 격차를 해하려면 증세할 수밖에 없다. 세금을 올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국가에는 경쟁이 기본이기에 이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보다 더한 조치를 취하면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빈부격차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계급사회가 된다. 지금은 계층사회이지만 나중에는 사는 지역도 계층화가 된다. 미래에는 피해가 모든 곳에 일어나고 환경도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 부유층은 자기들만의 지역을 만들어 경계를 짓고 자기만의 사회를 만들어간다.(다른 계급 즉, 서민층은 못사는) 이런 식으로 현존하는 빈부격차 나중에 계급사회 형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4. 또 다른 전염병이 닥칠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은 더 나아질 것인가?

동일한 파급력을 가진 전염병이 발발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대응은 힘들 것이다. 백신 개발은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거쳐야 할 물리적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이번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도입했던 신기술이 더 발전시키지 못하면 다른 전염병 대응도 똑같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시행착오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중증환자나 사망자는 줄일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 자체가 오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5.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모범적인 국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WHO 자금을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강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 파괴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환경문제는 한두 나라가 잘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해결방안은 선진국들(G20 countries)가 부담금을 더 많이 책임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나 다른 전염병이 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의료 종사자 파견 의료용품 지원 등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성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려면 성장을 포기해야 한다. 즉, 우리가 모두 개인 소유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육류섭취를 포기하고 공장 가동도 멈춰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진다. 즉, 전 세계 사람들이 미니멀라이프를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더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모니터링 강화와 투자가 필요하다.

6. 포스트 코로나 시점 정의

~3년 후로 예상된다. Long COVID(후유증 치료도 있기 때문이다. 큰 개념으로는 전염병을 자연스럽게 일상화하고 이제는 살 수밖에 없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염병의 일상화는 예전에 생각도 못 했다. 하지만 여러 국가가 봉쇄(lock down)를 경험했다. 즉, 자신이 걸리지 않아도 자신과 경제와 국가에 큰 영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다. 코로나가 종식한다고 해도 전염병은 반복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도 반복적인 피해를 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7. 청년이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연령상 어렵고 구조적으로도 어렵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청년들이 집합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가 힘이 된다. 따라서 전 세계 청년들이 연합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둘째 창의적 발상을 계속해야 한다. 이 위기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문제이므로 다음 세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한다. 어린나이부터(초등학교 or younger) 구조적 한계에 얽매이지 않은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p>8. 해결방안의 실용 가능성은 어떻게 따지나? 어떻게 구성하고 발달시킬 수 있나?</p> <p>미래학은 축적한 지식을 기반으로 사용해 사고의 기술을 가지고 생각을 조합해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 위기와 기회를 보고 경로를 파악하고 풀며 시나리오를 풀어가는 것이다. 가는 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생기면 거기서 동기부여를 찾는다. 위와 같이 청소년이 다양한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법을 찾기 위해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다. 현재의 문제에서 해법을 찾아서 관찰하고 현재의 방식으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가상의 환경을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이 예측기법을 배워서 미래문제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p> <p>새로운 정책 제안 vs 현존하는 정책 개선</p> <p>두 가지 다 필요하다. 다만, 이 두 가지 방법의 접근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으면 해결책이 막연하고 과도해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해법은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p>
--	--

3. 국제회의의 참여활동 결과

가. 세부 활동내용

○ 온라인 1일차 (2022. 7. 18)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Ice Breaking Session
	장 소	Zoom
	참석자	청소년 6인 전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ntimeter과 퀴즈 답변하기 등 다양한 아이스브레이킹 액티비티들을 통해 모든 대표단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회의에서 기대되는 점들이 무엇인지 짧게 발표함
2	프로그램	Plenary Session (ASEAN Youth Cooperation and Opportunities to Strengthen Connectivity between the Millennials and Generation Zs of ASEAN and ROK) – Ms. Larasati Indrawagita
	장 소	Zoom
	참석자	청소년 6인 전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국가들 및 대한민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중요성과 현존하고 있는 New Southern Policy Plus와 같은 정책들에 대한 강의를 들음. - 디지털 스킬 및 21세기에서 요구하는 소프트 스킬들을 최대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논의 - 이승명 청소년은 자신이 속해 있는 working group이 논의하는 주제인 community development에 관련하여 주요기관들 및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대면회의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노트테이킹 해 두었습니다. 또한, 연사님께서 강의 중 현존하는 아세안 활동 중 하나의 예로 소개해주신 ASEAN-ROK Mobility Project와 관련하여 이 프로그램이 현재 대한민국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상 물어보지는 못하였습니다.
3	주 제	Plenary Session (YOUTH IN POST-COVID 19 HUMAN RESOURCE DEVELOPMENT) – Ms. Madyah Lukri

구 분		내 용
	장 소	Zoom
	참석자	청소년 6인 전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과 커리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concept인 'Skill, Up-Skill, Re-Skill'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으며 아세안 주최 측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경쟁성 회복 탄력성 그리고 직장인 workers들의 적응력 및 민첩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배움 - Green Jobs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이로인 영향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Regional Study on Green Jobs Policy Readiness in ASEAN"에 대한 설명을 들음 - 이승명 청소년은 Green Jobs에 대한 강의를 듣고 "How do we define and promote Green Jobs for youths? 즉, 청소년들에게 Green Jobs를 어떻게 설명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Green Jobs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연사분께서는 코로나 전에 매년 진행되었던 ASEAN Green Jobs Forum에 청소년 섹션을 더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4	주 제	Plenary Session (ASEAN-ROK NEXT-GENERATION OPINION LEADERS PROGRAMME AND THE ASEAN-KOREA YOUTH SUMMITS) - Mrs. Mi-Young Han
	장 소	Zoom
	참석자	청소년 6인 전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NCYOK의 한미영 대표님으로부터 현재 NCYOK가 진행 중인 한국 청소년 올림피아드와 같은 활동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더욱 포괄적이면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운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움 -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다양한 아세안 국가의 청소년들이 강의 이후 큐엔에이 세션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NCYOK의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질문하였고 비록 한미영 대표님께서 직접 답변에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질문자들은 추후에 참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의 링크들을 전달받았습니다.

○ 온라인 2일차 (2022. 7. 19)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Panel Discussion (THE VITAL ROLES OF MILENNIALS AND GEN-Z IN POST-PANDEMIC RECOVERY) - 4 Panellists
	장 소	Zoom
	참석자	청소년 6인 전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명의 아세안 청소년들로부터 포스트 팬데믹 시대와 걸맞게 자신이 시작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을 들음 - 이승명 청소년은 패널리스트분들께서 각자 커뮤니티의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The Study Friend와 같은 단체들과 그들이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ASEAN Youth Social Journalism 등에 대한 스토리를 들으며 자신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였으며 이후 정책제안서 작성에 청소년 주도 활동에 대한 내용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Starting Your Own Initiatives" 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	주 제	DRAFTING WORKSHOP (REVIEW OF THE OUTLINE OF THE POLICY RECOMMENDATION) – Ms. Larasati Indrawagita, Mr. Dika Harliadi
	장 소	Zoom
	참석자	청소년 6인 전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제안서의 형식을 전달받았으며 정책제안서가 지켜야 하는 투명성과 협동성에 대한 짧은 강의를 들음 - 그룹에서 정책제안서를 작성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나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음 - 이승명 대표는 이 세션이 끝난 후 working group 멤버들의 참여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Ms. Larasati Indrawagita에게 발표자 질문자 그리고 working group lead가 모두 달라야 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연사분께서는 그룹이 모두 동의하고 정하는 대로 역할을 나누어도 좋다고 답변 해주셨습니다.

○온라인 3일차(2022. 7. 20)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Thematic Breakout Sessions
	장 소	Zoom
	참석자	청소년 6인 전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의 working group으로 나뉘어 대화를 주도할 host와 ppt에 아이디어를 정리할 rapporteur을 정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청소년들의 기회와 발전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미리 생각해 온 해결책들을 서로에게 발표하고 다른 대표들의 아이디어를 들으며 아이디어를 좁혀나감 - 주어진 시간 동안 정책제안서의 다섯 가지 clauses를 쓰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들에 현존하는 정책과 문화에 대해 물어보며 작성한 내용이 포용적이고 공평한지 확인

○ 오프라인 1일차 (2022. 7. 24)

구 분		내 용
1	프로그램	ASEAN Talk – REDEFINING SUCCESS IN THE POST-PANDEMIC ERA & FINDING NEW WAYS TO SOLVE OLD PROBLEMS – Mr. Shaun Hoon and Mr. Richard Yim
	장 소	캄보디아 현지 호텔 회의장
	참석자	청소년 6인 전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팬데믹 이전과 이후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와 경쟁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닌 지금까지 일궈낸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움 - 인생의 가장 낮은 곡선에 있더라도 충분히 빛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강의를 들음 - 이승명 대표는 이 세션이 끝난 이후 Mr. Shaun Hoon 에게 이러한 new definition of success가 개인의 잠재성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연사님께서서는 코로나 이후 "쉬어가고 된다는 생각과" 함께라면 강하다는 생각이 혼자 할 수 없는 것들과 바쁜 마음으로는 이를 수 없는 것들에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었다고 답변 해주셨습니다.

구 분		내 용
2	프로그램	PLENARY SESSION (YOUTH IN THE POST COVID-19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4 Speakers
	장 소	캄보디아 현지 호텔 회의장
	참석자	청소년 6인 전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명의 연사분들께서 청년고용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 좁히기 디지털 스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라본 청소년들의 인권과 기회에 대해 발표해주심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큐엔에이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3	주 제	World Cafe (Group Work Session) & Synthesis
	장 소	캄보디아 현지 호텔 회의장
	참석자	청소년 6인 전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회의에서 적기 시작한 정책제안서를 고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써 각 그룹의 host가 테이블에 남아 다른 그룹들에게 지금까지 적은 내용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음 대한민국 대표단 중 이승명 청소년은 working group의 host로서 연사분 (모더레이터의 진행에 따라 world cafe 세션에서 논의한 내용들과 받은 피드백들을 모두 정리하여 정책제안서가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나머지 대표들도 자신이 속한 그룹의 테마에 걸맞는 디테일한 피드백을 제안하며 활약하였습니다.

○ 오프라인 2일차 (2022. 7. 25)

1	프로그램	ASEAN Talk – Collaborations For Tomorrow, Connecting Sustainability for Circular Economy, Digit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a Digital Era – Mr. Khairudin bin Abdul Rahman, OCTOPUS Representative, Ms. Sol Kim
	장 소	캄보디아 현지 호텔 회의장
	참석자	청소년 6인 전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세안 대한민국 파트너십에 중점을 많이 뒀던 세션으로서 지금까지 한 아세안 관계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음 서울대학교에서 오신 김솔 연사분의 강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창의성과 혁신성의 중요성을 배움
2	프로그램	HIGH-LEVEL PANEL DISCUSSION (HOW THE YOUNG PEOPLE CAN INNOVATE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 H.E. Kung Phoak, H.E. Hang Chuon Naron, H.E. Ekkaphab Phanthavong, H.E. Kiki Yuliati
	장 소	캄보디아 현지 호텔 회의장
	참석자	청소년 6인 전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관계자분들과 고위 관직자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 속에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보호 및 서포트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를 들음 이승명 청소년은 H.E. Hang Chuon Naron을 비롯한 모든 패널리스트 분들에게 밀레니얼과 Z세대의 겹을 줄이면서 이 노력에 청소년들의 참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질문하였으며 패널리스트 세 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사용 극대화와 이 회의와 같은 한-아세안 청소년 협력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주 제	DIALOGUE WITH ASEAN YOUTH MINISTERS/HIGH-LEVEL OFFICIALS
	장 소	캄보디아 현지 호텔 회의장
	참석자	청소년 6인 전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정책제안서를 약 열 분의 고위관직자분들에게 발표하고 각 파트에 연관된 디테일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으로서 각 working group에서 한 명씩 앞으로 나가 제안된 정책들을 읽음 -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그룹의 김수인 청소년과 Governance 그룹의 김진혁 청소년이 발표자로 활약하였습니다. - 피드백 중 이 정책제안서가 실제 아세안 회의에 발표될 것이라는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았으며 이후 'Discussion With Ministers' 섹션에서 이승명 청소년이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working group의 정책들과 관련하여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깊게 고려하면서 정책들을 만들고 고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inclusivity와 다양성에 대한 대화를 피하기보다 청소년들을 이러한 대화에 포함 시킴을 통해 창의적이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정책과 청소년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개인소감문

구분	이름·역할	개인소감문
1	이승명 (대표)	<p>안녕하세요 이번 아세안 청소년 대화에 참석하였던 대한민국 청소년대표이자 팀 코리아의 대표 이승명입니다. 우선, 아세안사무국 Excellencies 및 연사분들 재차 AYD 조직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많은 이해관계자 자원봉사자 체인지메이커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이 없으셨다면 저는 오늘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p> <p>미래에 누군가가 저에게 어제의 질문 오늘의 열정 그리고 내일을 향한 비전을 어디에서 도출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세안청소년대화"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17년 동안 쌓아온 저만의 독특한 경험과 희망 기술과 스킬 등을 활용해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공동체 한국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들의 꿈과 기대 그리고 미래 계획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회의를 특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청소년 대표들에게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는 데에는 네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p> <p>첫째 하이브리드 형식입니다. 다른 국가대표들과 오래갈 수 있는 소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출발 전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정책제안서 작업의 상당 부분을 완성함으로써 실제 회의에서는 권장 사항을 편집하고 대화의 질을 강화하는 과정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정책제안서의 핵심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회의에서의 시간 압박이 덜 하였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p> <p>둘째 엄청난 네트워킹 기회입니다. 제 자신을 한 나라의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인정받는 지도자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이 청소년들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는</p>

구분	이름·역할	개인소감문
		<p>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도 느낄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정상 분들과 특별 게스트 분들은 이 회의가 끝난 뒤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통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몇몇 연사들과 사무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록 회의가 끝난지 3주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분들이 제게 소개해주신 많은 기회와 정보를 통해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중에 있습니다.</p> <p>셋째 청소년들이 공식적인 글로벌 리더로 대우받았던 것입니다. 청소년 대표단들은 세계적인 유명회의들에 참가하는 공식 대표단들에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퀄리티있는 대우를 받았으며 이는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의 더 자랑스러운 구성원이 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어른들 못지않게 가치 있고 저희의 일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길이었습니니다.</p> <p>마지막으로 잊지 못할 특별한 행사입니다. 아세안 한국 관계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은 저희 모두가 아직 생소할 수 있는 노래와 문화의 양상에 맞추어 함께 춤을 추고 배우고 노래하고 관계를 보존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주최국의 놀라운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둘러보았을 때 되살아났습니다. 이러한 행사 등을 통해 서로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고 공감을 나누는 것이 저희의 정책 권고와 공식적인 그룹활동을 더욱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중심적이었습니다.</p> <p>한국 팀의 리더로서 그리고 정책제안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파트의 호스트 진행자로서 저는 미래에 아세안 한국의 청소년 행사들을 많이 개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관한 권고사항을 소개하여 다양한 대표들 그리고 연사분들과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이 크나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아이디어와 관계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며 이 기회가 향후 몇 년 동안 청소년 참여와 역량 강화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공식 회의와 대화에 참여하고 아세안 한국 협상대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중한 기술, 이야기, 관계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p>
2	김영채(서기)	<p>'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소년- 코로나 후의 기회와 위기에 대한 주제로 캄보디아에서 주최된 아세안 청소년 회담에 참가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을 위해 의료교육 음악봉사를 해왔고 그들의 앞날의 현실을 보다 밝게 해주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세안 회담에서는 "Narrowing down the developmental gap between ASEAN countries"라는 주제를 다루는 그룹에 배정되어 아세안 국가들 간의 빈부 발달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또,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국적의 조원들과 토의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ASEAN Talk라는 강연도 중간중간 진행되었는데 peer mentoring 프로그램과 프리랜서라는 직업 교육 봉사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연 내용들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 교육 봉사의 질과 수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세안 청소년 회담을 통해 보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사회에 대한 가치와 관점들을 들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분명히 글로벌 무대에 설 미래의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3	김수현	<p>저는 아세안 청소년 대화 2022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던 김수현입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어떤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알아보고 또 아세안 국가대표들과 논의를 통해 각 나라의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와 같은 안전을 다루기 위한 다양한 접근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각국 아세안 대표들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그룹에 속했는데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합의점을 찾아 정치 및 사회 개발 분야에서 청소년을 의사결</p>

구분	이름·역할	개인소감문
		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강조하는 정책제안서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아세안 청소년 대화 2022가 저에게 뜻깊었던 이유는 'Cultural Performance Session'을 통해 아세안 문화를 몸소 배우고 느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2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국의 대표단과 교류하며 함께 지식을 쌓고 추억을 만든 경험은 잊지 못할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컨퍼런스를 통해 초국가적인 연대형성을 위한 단일성(unity)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문제해결 방안을 세계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5. 자체평가

구 분	평 가
목표대비 달성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좋았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혼합 회의를 약 5일간 하였기에 다른 대표들 및 사무국 관계자분들과 충분한 시간을 두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 한국대표단 팀원 6명 전원이 질의응답 발표 팀워크 시간에서 발언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정책제안서를 발표할 때에도 각 파트에서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해 주셔서 더 많은 대표들이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 Special dinner이나 cultural night 등 회의 시간 밖에서도 고위관직자분들 이해관계자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며 회의 중에는 저희가 발전시키고 있는 정책제안서가 미래에 어떤 이로운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지 알 수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 회의 프로그램과 강연들이 아세안 국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한-아세안 협력을 위해 짜여졌다는 것이 몸소 느껴져서 이질감이 전혀 없었고 미리 조사와 준비를 해간 대로 발표한 한국의 입장에 많은 이들이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한-아세안 회의였기에 대화 내용이 훨씬 더 국제적이고 포용적이었습니다. -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분들과 아세안 사무총장님 캄보디아 장관님 모두 개회식이나 특정 일정에만 참가하시는 것이 아닌 회의 기간 내내 상주하시며 모든 일정에 참여하셨기에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경청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회의의 질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쉬웠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공식 대표단 이외에 한국에서 다른 팀이 참가하였는데 때때로 주최 측과 소통이 되지 않아 두 팀에 오는 전달사항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오프라인 회의 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스케줄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꽤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발표 및 질문 기회를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6. 차기 참가자를 위한 조언

구 분	조언 내용
사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earch(사전조사를 자신에게 잘 맞는 정리방식을 찾아 약 한 달 전부터 꼼꼼히 그리고 틈틈이 준비해 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research topic 이나 question 등을 세부화하거나 관련 비디오를 찾아보는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사전 준비과정을 즐기면서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사내용을 팀원들과 주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불필요하게 서로의 조사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이후에 실제로 회의에서 만났을 때 서로의 조사내용이 너무 비슷하여 느낄 수 있는 허탈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의견교류가 필요합니다. - 팀원들과 sns나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자주 소통하고 회의에대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고 모든 팀원들이 오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미팅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회의 전 단합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회의는 여러개의 topic들로 나누어서 타 국가의 팀원들과 교류를 이어나가야 했던 만큼 준비 물품 중 꼭 챙겨야 할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은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크고 작은 물품들(엽서 화폐 등)은 챙기면 좋을 듯합니다. - 국제회의 스케줄이 매우 바쁘게 돌아가기에 좋은 컨디션 유지를 위한 개인 상비약, 작은 간식 등은 개인이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 여권, 비행기 표, 영문 예방 접종 증명서 등의 중요 문서들은 언제 어떻게 필요하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꼭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국제회의 참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언권이 생긴다면 조금 두렵거나 100% 설립된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이 기회를 잡아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회의 참가인원이 많아 조금 지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하여 많은 대표들 그리고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킹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정식 회의 시간 밖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들이나 행사들도 꼭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소년 대표들이 공식 회의 자리 밖인 이 자리에서도 꾸준히 협력하고 대화를 나누기에 만약 이런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날 회의로 돌아갔을 때 놓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이곳은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이 아닌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언제나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보이는 모습에 국명이라는 이름표가 붙여지게 된다는 항상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일정을 수행할 때 매우 formal한 자세로 수행하는 것이 좋으며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발표할 때에도 나도 모르게 다른 대표들의 국가에서의 지켜지는 문화나 법적 요소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double check하는 것은 필수이고 몰랐거나 지적받았을 경우 공손하게 물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 청소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가는 회의이기에 언제나 다른 이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즉, 공식적이지 않은 행동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은 행동들은 삼가셔야 합니다. - 나 개인의 행동이나 의견들이 자칫 잘못하여 팀원이나 함께 계신 한국의 고위 관료분들의 공식의견으로 잘못 여겨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신중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담당자님께서 인솔해 가시는 만큼 거의 모든 사항들을 팀의 담당자님께 먼저 여쭙보고 의견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제회의 종료 후	<p>회의가 끝나갈 즈음부터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작성 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모든 팀원들이 회의가 끝난 후에도 연락을 하며 파트 분배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기타제언	<p>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회의에 소모되는 시간이 무척 많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받고 팀원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독단적인 행동은 팀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p> <p>이 경험을 통해 배워갈 수 있는 점이 무척 많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이력에 남기기 위해 혹은 입시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p>

7. 활동사진



첫째 날 화상회의(줌-개회식)



Senior Officer, Education, Youth and Sports
Division at the ASEAN Secretariat,
Larasati Indrawagita 정책 제안서 작성법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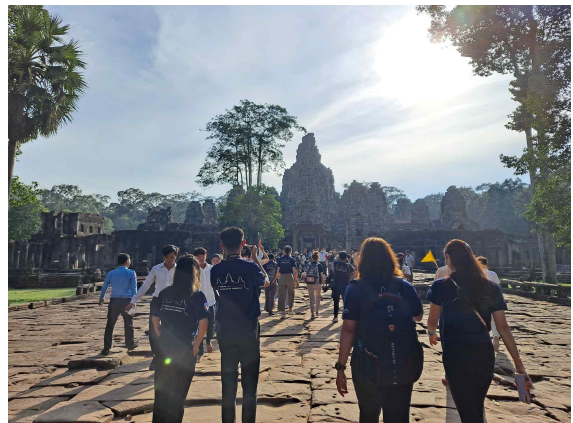
패널리스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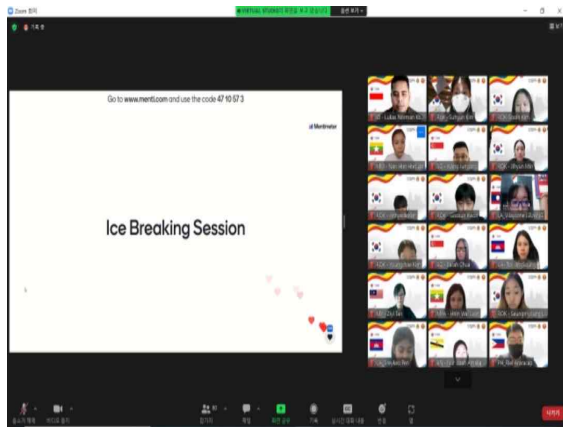
정책제안서 작성



한국 청소년 대표단(이승명 학생)
Q&A session 질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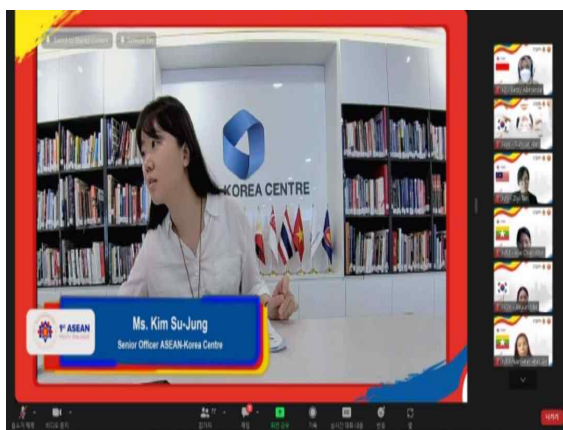
Cultural Excursion (현지 탐방)



온라인 화상회의 사진- Ice Breaking Session



온라인 화상회의 사진- 개회식
ASEAN anthem, ASEAN 네트워크 소개



Senior Officer ASEAN-Korea Centre, Ms.
Kim Su-Jung
한-아세안 협력 주제 강의



두 번째 날 현장 회의 사진



양코르와트 Cultural Excursion(현지 탐방)



Cultural Performance -
캄보디아 대표단의 전통춤

8. 기타 활동자료

가. 기타 제출자료 목록

번호	구 분	자료명	자료 설명	자료유형
1	사전활동	팀 목표 설정 및 활동계획	각자의 목표 각오와 팀 목표 설정, 팀 내 규칙 설정 팀 내 역할 정하기	hwp
2	사전활동	1차 회의록, 2차 회의록, 3차 회의록	회의 시작 전 각자가 회의에서 맡을 부분 문화교류주제, 사전활동 준비 등에 대해 토의함	hwp
3	국제회의 참가 활동	국제회의 일지 오프라인 회의 1일 차, 2일 차	각국 대표단의 정책제안서 발표+ 고위관료 분들의 피드백 문화교류	hwp

붙임 국제회의 프로그램 1부 끝.

붙임

국제회의 프로그램

□ 온라인 회의 환경

구 분	주요내용
활용 플랫폼	 
	온라인 회의 사진
	 
	온라인 회의 사진
	 
	온라인 회의 사진
	 
	온라인 회의 사진
요약	<p>1st ASEAN Youth Dialogue의 온라인 회의 7/18, 19, 20일은 Zoom을 통해 진행되었다. 줌 회의 링크와 참가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약 일주일 전 모든 대표단에게 메일로 발송되었다. 간략하게 ASEAN의 역사와 역할에 대해 진행자분께서 설명 해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대표단끼리 알아가는 시간인 Ice Breaking Session은 mentimeter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각국 대표단은 대회에 대해 기대하는 점 논의하고 싶은 주요 관심사 교류하고 싶은 국가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며 활발한 교류의 시작을 끊었다. 그 후 한-아세안 협력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이 과정에서의 청소년들의 역할에 대해 패널리스트분들께서 발표를 해주셨으며 마지막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회의의 진행방식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며 온라인 회의를 마무리했다.</p>

□ 국제회의 프로그램 평가

구 분	좋았던 점	개선 요청사항
국제회의 프로그램	<p>이번 ASEAN Youth Dialogue는 온라인 3일 오프라인 2일 동안 열리는 국제회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의들보다도 소요시간이 길었기에 청소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기회와 다양한 문화적인 교류를 보고 체험할 기회들이 타 회의 보다는 월등히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축제 혹은 교류의 장과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직접 국제적인 행사의 규모 등 여러가지들을 더 잘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p> <p>이번이 첫 개최라 이후에 다른 변동사항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주최 측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방식에 대해 많은 대표와 진행자들이 만족한 것 같아 추가로 다른 의견이 있지 않은 이상 이후에도 이러한 부류의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	<p>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회담인 만큼 이것이 참가자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이고 의견교류의 활발함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측면에서는 무척 좋았으나 행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면모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p> <p>코로나 검사 시간이 다르게 전달된다거나 기존에 계획되었던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서 인솔 시간이나 장소가 불명확한 경우들이 있었으며 저녁 장소가 바뀌었는데 공지를 제대로 듣지 못한 등 무척 많은 인원이었기에 업데이트된 정보의 전달이 다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에 계속해서 double check을 해야 했으며 이후 국제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신 분들 역시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p> <p>저희는 함께 인솔을 위해 가신 한국청소년진흥원의 담당자님이 계셔서 이러한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지만 담당자님께도 닿지 않는 정보들이 있기에 함께 계속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p> <p>또한, 이번 회의의 하이라이트였던 World Cafe session의 소요시간과 진행방식에도 어려운 점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채 몇 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statement 들을 제안하고 팀원들 모두가 consensus에 달해야 했던 만큼 일정이 빡빡한 점이 다소 아쉬웠었습니다. 특히나 팀원들끼리 모인 첫 세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만큼 온라인의 기계적 오류 등 여러 문제로 의견교류가 끊김 없이 진행되기가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팀원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난 당일 바로 statement들을 확정 지어야 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p>
기 타	<p>공식적인 사전교육에서 단순 국제회의의 그 자체뿐만 아니라 방문할 나라인 캄보디아의 특성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할 점들 준비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포트 해주신다고 느꼈습니다.</p> <p>실제로 직접 만난 후 진흥원 측에서 진행한 교육에서는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안전 관련 여러 가지 사전활동들을 진행해 주셔서 준비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p>	<p>전염병 확산과 많은 수의 팀원들의 거주지역 문제로 온라인으로만 사전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이 역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공식교육에서는 국제회의의 참가 예절이나 이런 방식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었고 이 역시 도움은 되었으나 실제 참가자들과 사전에 이야기할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후 준비와 의견교류를 위해 자체적으로 여러 번 만나야 했었는데 인원이 다소 많은 편이었고 학업 중인 참가자들이 많아 모든 인원이 시간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러 번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모든 인원이 모인 적이 1-2번 정도 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후에 각자 자료를 조사한 부분들을 공유하거나 제안하기 위해 모여야 했는데 참가자들이 한 번에 다 모이기가 힘들어 진행에 차질이 생겼기에 함께 공식적으로 모일 기회가 더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p>